

# 다시 힘 받는 DJ 대북특사론

## 輿 일각 “특사임명 한미 공조 속 北 6자회담 복귀 설득해야”

열린우리당 내에서 6자회담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방북특사로 임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직후인 뿐 아니라, 최근 김 전 대통령이 마-일 보수세력 등을 정면 비판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성사 가능성이 주목된다.

최성 의원은 17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5단계 포괄적 접근방안’을 제시하면서 “DJ를 노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해 한미 공조 속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는 역할이 부여될 경우 부시 대통령 역시 지



지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야당 인사까지 포함하는 초당적 방북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한미 일 포괄적 접근방안 구체화 ▲북중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측면지원 ▲김정일 위원장의 DJ 방북약속 이행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임종석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데 실패한다면 한반도 정세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 역시 “북미 양자가 현상황의 난제를 풀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남북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DJ를 특사로 보내 신뢰를 회복한 뒤 미국 중간선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부의 ‘6자회담 북귀와 쌀비료지원 연계’ 대신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쌀비료지원과 연계시키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남북이 공동대처한다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DJ는 북한 선군정치 도운 사람” 이상배의원 ‘막글’ 또 파문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북한의 선군정치를 도운 사람’이라고 비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상배 의원이 1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부산대 강연에서 “미국은 북한이 안심하고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대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북핵과 미사일 위기의 원인은 김 전 대통령의 자신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북의 의도대로 따라가다가 나라의 안보를 이 경계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무슨 염치로 북을 두둔하고, 또 정상회담을 말하고 있는가”라며 “이번에는 또 얼마를 바치고, 북에 사정하며 매달리란 말”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의원의 발언으로 그동안 거담적으로 진행됐던 서진정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남아 있는 한 한나라당의 호남 쟁탈전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현장과 시각

### ‘프로젝트’ 전성시대



박치경

정정부 차장

최근 서남해안 개발계획(S프로젝트) 밑그림 그리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 목표와 무안·영암 등 국토 서남권을 물류·레저·바이오 단지로 만들어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획기적인 구상이 꿈틀거리고 있다.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사)서남해안포럼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기구신설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러나 S프로젝트 사업 지구에 포함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조성(J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주체인 전남도의 반응은 뜻밖에도 “별로”다. 전남도로서는 원군이 나타났다며 반길 법도 하지만 탐탁스러워 하지 않는다. 왜 일까?

S·J 두 프로젝트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며 첨단산업과 레저타운 등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일치한다. 양대 프로젝트 모두 정부의 행·재정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사업의 주축동력으로 여기고 있다. 또 한 편에서는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경남·부산이 ‘남해안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고 있다.

전남도가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반색도 하지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를 위한 특별법도 상정단계에서 사행성 논란이 일어 주춤하고 있는 터에 새로운 특별법 추진은 ‘전력 분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사업부터 하나씩 마침점을 찍고 나가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깔려 있다.

전남사업 모두는 70년대 이래 화려한 전남개발 프로젝트들에 대한 실망에 익숙해 있다. 상대적으로 후지역인 전남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시혜라도 베풀 듯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들이 쏟아졌다. 막대한 예산지원 계획이 발표되고 주민들은 조금만 지나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 같은 환상에 들뜨곤 했다.

한시적인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 대대적으로 펼쳤던 섬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결실을 보았다면 섬주민들의 생활수준은 크게 높아졌을 것이고 최근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남도의 섬가꾸기 사업계획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 흥행했던 프로젝트들의 성적표를 들춰볼 필요가 있다. 하루 아침에 지역의 모습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호들갑떨던 사업들의 현주소는 어디쯤인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실망에 익숙한 주민들은 또다시 등장한 초대형사업계획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할 지 모르겠다. “김치국부터 마시긴 이젠 지겹다”고.

/unipark@kwangju.co.kr

## 작통권 환수시기 ‘조정 가능’

### 정부, 안보상황 변화 때 순연案 美측에 제안할 듯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목표연도가 확정되더라도 안보상황이 변화하면 목표연도를 순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도록 미국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7일 “다음달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목표연도(X연도)를 결정하면 그에 앞서 안보상황을 평가할 것”이라며 “그 결과 안보상황 변화 요인이 발생하면 X연도를 순연토록 단서를 두도록 미국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즉 SCM에서 환수시기가 결정되더라도 X연도 2년 전부터 한미가 공동으로 훈련 및 안보상황을 평가해 한반도 안보를 위

협하는 요소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양측 합의하에 X연도를 순연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비록 X연도를 순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X연도로 설정하고 있는 2012년 이후로는 순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군은 2012년을 마지노 선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12년이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X연도가 2012년 이후로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X연도 순연가능 단서조항은 SCM 공동성명 또는 전시 작통권 환수관련 합의서 등에 명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노 대통령 귀국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6일 밤 유럽과 미국 순방을 마치고 성남공항에 도착, 환영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치 활동’ 논란 박세환 향군 부회장 사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박세환(66·예비역 육군 대장·사진) 육군 부회장이 전시 작전 통제권과 관련한 향군의 ‘정치 활동’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향군이 밝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성명서 가운데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이 이뤄지더라도 내년에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게 해 기필코 차기정권이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 “北 대포동 2호 공중서 부러져 해안가 추락”

### 합참, 사실상 실패 결론

북한이 지난 7월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에서 발사한 대포동2호 미사일은 40초간 정상비행을 하다가 공중에서 부러져 발사대에서 2km 이내의 해안가에 추락,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당시 세 번째로 발사된 대포동2호는 40초간 정상비행을 했으나 그 이후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으로 비행하지 못하고 발사지점에서 가까운 동해안 인근 해안가에 추락,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합참은 대포동2호 실패 원인은 “기술적 결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업소용 전문 냉·난방기 대표 브랜드

# 업소용 냉·난방기 - 쓸수록 돈 버는 센추리

무담보, 무보증 장기분할 구입 가능

152만원 가격지원

75% 연료비 절감!

무보증 장기할부

1588-8717

산행안내

산행코스 소개

산행준비물

산행안전수칙

산행예약